

## 11. 히카루젠지, 유가오를 데리고 폐원으로 가다

쭈뼌 지지 않는 달에 이끌려 급작스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자가 망설이니,<sup>84</sup> 겐지 님께서는 이래저래 말씀하신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구름이 달을 가리니, 밝아져 가는 하늘이 참으로 정취가 있다. 곤란해지기 전에 출발하여야겠다며 여느 때처럼 서둘러 나가신다. 여자를 가볍게 수레에 태우시니, 우근도 올라탔다. 그 근방 가까이 있는 모원(某院)<sup>85</sup>에 도착해서서 관리인을 불러내는 동안, 황폐해진 문에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일엽초<sup>86</sup>가 올라다보인다. 비할 바 없이 나무 그늘이 만들어 내는 어둠이 짙다. 아침 안개도 짙고 축축한데, 수레의 발까지 올려 두셨기에 소맷자락도 몹시 축축해졌다.

“아직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늘, 이것저것 마음 졸이게도 되네요.

84 서쪽으로 지는 달은 정토, 즉음음 연상시킨다. 여자가 주저하는 것은 즉음음 예감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85 미나모토 도루(源融, 822~895)의 저택인 가와라노인(河原院)이 모델. 교토 로쿠조보몬(六條坊門) 남쪽의 마데노코지(万里小路) 동쪽에 있었다. 미나모토 도루가 오늘날 미야기 현(宮城県)인 무쓰(陸奥) 지방의 시오가마(塩釜)의 경치를 본떠 정원을 만들었으며, 그의 사후 우타 법황(宇多法皇)에게 헌상되어 황실 소유가 되었다가 법황의 사후에는 절이 되었다. 926년 6월 미나모토 도루의 망령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으며, 10세기 중반에는 황폐해진 상태였다.

86 고사릿과의 다년생 상록 양치식물.

(히카루겐지)

옛날 사람도 이렇듯 심하게도 해매었을까  
아직 나 잘 모르는 새벽 사랑의 길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자는 부끄러워하며 이리 읊는다.

(유가오)

“산등성이의 속마음도 모른 채 흘러가는 달  
하늘 길 가다 말고 그림자 사라질 듯<sup>87</sup>

불안하네요.”

어쩐지 두렵고 으스스해하는 듯하기에, 그 복작대던 거처에 살아  
온 탓인가 보다 싶어 좋게 생각하신다.

수레를 문 안으로 들여놓게 하고, 서쪽 채에 앉으실 자리 등을 마  
련할 동안 수렛대를 뒷마루 난간에 걸쳐 두고 기다리신다. 우근은 마  
음이 달떠 이제까지 있었던 일 등도 남몰래 떠올렸다. 관리인이 정신  
없이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에, 이분의 신분을 완전히 알게 되

87 히카루겐지를 산등성이에, 여자 자신을 달에 비유하였다. 아랫구는 죽음을 예감하는  
의미로 읽힌다.

었다.<sup>88</sup>

어슴푸레하게 사물이 보일 때쯤 수레에서 내리셨던 듯하다. 임시  
로 만든 자리이지만,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다. “수행원도 데리고 오  
지 않으셨군요. 불편하실 터인데요.” 관리인은 겐지님과 친밀한 하  
급 가사(家司)<sup>89</sup>로서 좌대신 댁에도 출입하는 자인지라, 가까이 다가  
와 “그럴 만한 사람을 부르는 게 어떨지요”라는 등 우근에게 말씀드  
리도록 한다. 하지만 겐지님께서, “일부러 사람이 오지 않을 만한  
은신처를 찾은 것이다.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절대로 밖으로 새어 나  
가지 않도록 하거라” 하며 입막음을 시키신다. 하여, 아침밥<sup>90</sup> 등을  
서둘러 올려 드렸지만, 중간에서 상을 나르고 시중을 들 만한 사람도  
갖춰져 있지 않다. 아직 경험해 본 적 없는 한뼉잠에 오키나가 강(息  
長川)이라며 약속<sup>91</sup>하시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해가 높이 올라올 무렵 일어나셔서 격자문을 손수 올리신다. 너  
무 심하게 황폐해진 뜰이 인적도 없이 저 멀리까지 바라다보인다. 나  
무숲은 참으로 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오래되었다. 가까이 있는 초목

88 황실 소유 저택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고 관리인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황족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89 가사(家司)는 섭정·관백, 대신, 3위 이상 귀족의 저택에서 가정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  
는 직책이다.

90 원문은 ‘오카유’(御粥). ‘가유’는 쌀로 밥을 지은 것을 말한다. ‘가타가유’(圓粥)는 오  
늘남의 밥이고, ‘시루가유’(汁粥)는 오늘남의 죽.

91 두 사람 사이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맹세. ‘논병아리 뜰 오키나가 강 비록  
마른다 해도 님에게 약속한 달 다할 날 있으리오’(には鳥の息長川は絶えぬとも君に語ら  
む言盡きめやも, 『万葉集』卷二十·四四五八, 馬史國人)를 인용하였다. 오키나가 강은 오늘  
날 시가 현(滋賀県)인 오미 지방(近江國) 사카타 군(坂田郡)에 있었다고 한다.

등은 별달리 볼 만한 곳 없이 모든 게 다 가을 들뜬<sup>92</sup>이 되어 있고, 연못 또한 물풀로 덮여 있다. 무척 을씨년스러워져 버린 곳이 아닌가. 따로 있는 아래채 쪽에 방을 마련하거나 하여 사람이 거처하는 듯하지만, 이쪽과는 떨어져 있다.

“을씨년스러워지기까지 한 곳이 아닌가. 하지만 귀신 등도 나라면 용서해 주겠지”라고 말씀하신다. 얼굴은 여전히 감추고 계시지만 여자가 무척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이기에, 참으로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거리를 두는 것도 일의 형국으로 보았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이리 읊으신다.

(히카루겐지)

“저녁 이슬에 이리도 꽃잎 활짝 열어 주는 꽃  
골목길 지나치다 소식 전한 그 인연<sup>93</sup>”

이슬의 빛<sup>94</sup>이 어찌 보이시나요.”

여자는 걸눈으로 슬쩍 보고,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유가오)

빛이 난다고 보았던 박꽃 위에 맺힌 이슬은  
어스름한 저물녘 헛본 것이었구나

멋지게 여겨지신다. 편안히 계시는 겐지 님의 모습은 참으로 세상에 다시없을 듯하고, 장소가 장소인 만큼 오히려 불길하게까지 보이신다.

“끝없이 거리를 두시는 모습이 원망스러워 제 모습도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였거늘. 지금이라도 누구신지 밝혀 주시지요. 참으로 으스스하네요.”

이리 말씀하셔도, 여자는 “어부 자식이기에”<sup>95</sup>라며 여전히 마음을 터놓지 않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가냘프고 애교가 있다.<sup>96</sup> 겐지 님은 “중소. 이 또한 내 탓이지요”<sup>97</sup>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야기하기도 하며 그날을 보내신다.

고레미쓰는 겐지 님께서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 가볍게 드실 만한 것 등을 바친다. 우근이 뭐라 할지 참으로 가엾기에, 가까이에서도 모

92 ‘황폐한 마을 사람도 늙어 버린 집이로구나 앞뜰도 바자울도 가을 들뜬 되었네’(里はあれて人はふりにし宿なれや庭もまがきも秋の野らなる, 『古今和歌集』 秋上, 僧正遍照)를 인용하였다.

93 저녁 이슬은 히카루겐지, 꽃은 여자.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고조(五條) 골목길에서 만난 인연 때문이라는 와카이다.

94 유가오가 맨 처음 보낸 ‘어렵직작에 그분이 아닐런가 생각하누나 흰 이슬 빛 더해져 박꽃 더욱 빛나네’를 옆두에 두고, 자신의 미모를 보아 달라는 와카이다.

95 ‘흰 파도 치는 바닷가 터전 삼아 살고 있누나 어부 자식이기에 거처도 못 정했네’(白波の寄する渚に世を過ぐす海人の子なれば宿も定めず, 『和漢朗詠集』 下, 遊女).

96 여자가 자기 신상을 밝히지 않는 것은 괴로웠던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살려고 하여도 아직 남자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유가오의 태도를 미테(媚態)로 보고 있는 히카루겐지의 태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다.

97 ‘어부가 베는 해초에 사는 벌레 와레카라여 내 탓 하며 울지만 세상 탓 하지 않네’(海人の刈る藪にすむ虫のわれからと音をこそ泣かめ世をば恨みじ, 『古今和歌集』 戀五, 典侍藤原直子). ‘와레카라’(割草)는 해초에 붙어 사는 절족동물(節足動物)의 이름이다. ‘내 탓’이라는 의미의 ‘와레카라’(我から)와 동음이의어로 이중적인 의미로 쓰였다.

실 수 없다. 겐지 님께서 이렇게까지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게 흥미롭다. 여자가 자못 그럴 만한 자태를 지녔거니 하고 추측하는데도, 내가 아주 충분히 구애할 수 있었건만 양보해 드렸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라는 등 방자한 생각을 하고 있다.

겐지 님께서는 비할 바 없이 조용한 저녁 하늘을 바라보신다. 안쪽은 어둡고 어쩐지 무섭다고 여자는 생각하기에, 킷마루의 발<sup>98</sup>을 올리고 곁에 누워 계신다.<sup>99</sup> 저녁놀이 비친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여자 또한 이러한 모습을 예상치도 못하였기에 이상한 마음은 들면서도, 온갖 시름을 잊고 조금 편안해져 가는 모습이 참으로 어여쁘다. 이렇게 느닷없이 옆에 붙어 지내면서 뭔가 아주 두렵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어림에 같고 안타깝다. 격자문을 일찌감치 내리시고 등불을 가져오게 한다.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게 된 관계인데 여전히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고 계시는 듯하여 괴롭소”라며 원망하신다.

궁중에서 주상께서 얼마나 찾으실까, 사자가 어디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 마음이 쓰이신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이상한 내 마음이라고, 로쿠조 근방에 계신 분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실까, 원망을 받더라도 괴롭기는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며, 딱한 쪽으로는 먼저 그분이 생각나신다. 무심히 마주 앉아 있는 여자를 애처롭게 여기시면서, 너무나 사려가 깊고 보는 사람도 괴로워질 만한 구석을 그분이 조금만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지도 모르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계셨다.

98 킷마루와 몸체에 붙은 조붓한 방인 히사시 사이에 처진 발.

99 여자는 폐원 안쪽에 깃들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기를 느끼지만, 히카루겐지는 눈치채지를 못한다.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